

‘진속불이’의 미학으로 바라본 절집 성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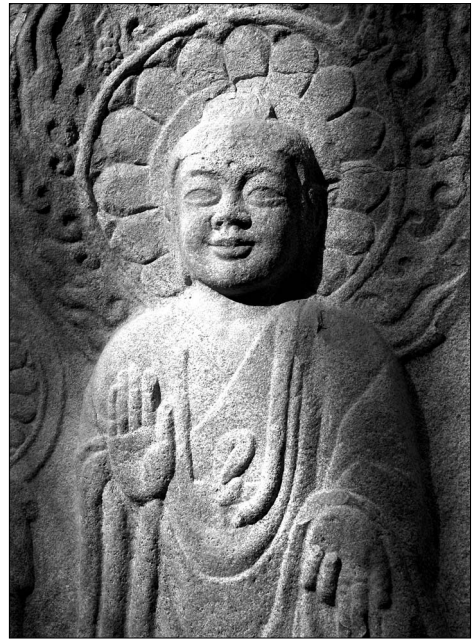
불교의 아름다움 찾아서
글·사진 이찬호
담안박스 펌
1만5천원

사찰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불상이나 탑이다. 많이 보기는 했지만 막상 감상을 어떻게 하지 몰아오면 막막할 때가 있다. 물론 감상법은 정해진 정답이 없다. 하지만 가장 흔한 방법은 모양이나 쓰임새에 방점을 두고 사용된 재료나 재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근원적 ‘아름다움’에 무게를 실는 것이다. 좀 더 전문적으로 감상하려면 이런 양식이 변화되고 발달해온 역사까지 짚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흔히 양식사(樣式史)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불상이나 불탑 혹은 성보 건물에 대해 아름다움(美)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불상이나 탑 너머에 있는, 종교적 발원서 시작돼 심미안을 거쳐 친근함과 진실을 추구했던 과정을 하나하나 짚는다.

안이 만들어낸 불교예술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중국 철학자 이중톈은 그의 책 《미학강의》에서 “미학은 철학의 검을 사용해서 예술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서양철학을 전공해서 학위를 따고 대학에 자리 잡았지만 꾸불꾸불한 우회로를 거쳐 사상적 전회를 이룬 뒤 동양미학, 불교미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저자가 불교와 미학을 만난 것은 낯설지 않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교에서는 종교적 목적을 떠나 순수한 미적 가치 그 자체를 창조해 내려 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학, 미술, 건축, 음악, 무용 등 여러 예술 형식을 빌려 불교의 진리와 윤리를 표현하려는 가운데에는 미적인 가치들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었을 것이고 이런 미적인 다양한 예술적 형식으로 불교의 진리와 윤리를 나타낸 모든 것, 또는 불교의 진리와 윤리적 가르침을 밝히는 가운데 미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불교예술’로 명명할 만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예의 불교가 정착된 지역이 그렇듯 각 지역의 불교예술은 그 지역마다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저자는 밝힌다. 저자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화엄철학’이다. 우리나라에서 불화와 불상으로 그려지거나 조성된 부처님과 보살은 대부분 대승불교 가운데서도 화엄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절의 법당에 모셔지거나 산하 곳곳에 새겨진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미륵불,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



한국최고의 석불로 꼽히는 ‘서산마애삼존불’

화엄철학 예술로 승화된 사찰 조영 170여 컷 사진 발로 뛰며 답사

장보살 등은 모두 《화엄경》에 등장하거나 화엄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보살들이다. 자연스레 저자가 직접 발로 밟았던 지역이나 렌즈가 포커스를 맞췄던 곳도 이런 화엄철학이 예술로 승화된 절집 곳곳이다. 하지만 이런 화엄철학은 예술사상사적으로는 결국 중생과 부처님이 둘일 수 없다는 진속불이의 미학으로, 표현에서는 한국인의 심성에 맞춰

자연주의의 미학으로 거듭났다. 이 책에 실린 답사지는 물론 170여장의 사진들은 저자가 직접 이 땅 곳곳을 밟고 답사했다. 흑백과 컬러가 혼합돼 담겨진 사진들은 저자가 그곳에 멈춰서 하루 내내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시로 찾았다가 발견해 낸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다. 이미 한 차례 개인 사진전을 가졌던 저자는 처음에는 강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가 아닌 마음이 담겼다’고 말한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인 ‘불교와 미학’에서는 한국의 석가모니 불상을 살펴본다. 2장인 ‘빛 그리고 무한,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에서는 우리나라 불교사상의 주류는 화엄불교였으며,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화엄경》 주불인 비로자나불이 많이 조성돼 신봉되어 왔음을 밝혔다.

그리고 4장인 ‘진속불이의 미학 : 가장 한국적인 우리 민중의 부처님’에서는 우리 불교 예술 속에 녹여진 진속불이의 미학과 운주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곳곳서 발견할 수 있는 민중적이고 한국적인 불상의 모습을 조망한다.

마지막 5장인 ‘한국불교의 자연주의 미학과 불국토’에서는 한국불교의 중요한 특색 중 하나인 자연주의 미학과 불국토 사상에 대해 얘기하고, 그러한 사상을 잘 나타내 주는 여러 곳의 불상 및 불탑이나 반야용선의 모습, 그리고 불국토를 지키는 위엄 있고 용맹한 사천왕상 등을 고찰한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템플스테이’ 이것만은 꼭 알고가요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남궁 선 역음 | 운주사 펌 | 1만5천원



템플스테이 (templestay)는 말 그대로 ‘사찰의 생활 방식을 따르며 일정한 기간 사찰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바쁜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사찰에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즉 템플스테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휴(休)’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회다. 또한 전통사찰에 다시 정착하고 고양시킴과 동시에,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켜켜이 쌓인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뛰어난 ‘힐링캠프’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알고 가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 책은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찰의 전통문화, 그리고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담은 상징, 의례, 경전, 수행법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풍부한 사진과 다양한 그림은 독자들을 지루하지 않게 불교의 세계로 안내해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뿐 아니라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한국의 불교문화와 교리, 사찰의 생활 등을 재미있게 이해하는 안내 지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은 먼저 템플스테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나서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통해 정리한다. 이어 한국불교의 역사와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것이 서론에 해당한다.

이어 본문 내용은 12주제로 나뉘어 하나하나 소개한다. 먼저 ‘사찰예절’에서는 절에서의 마음가짐, 언어와 행동, 절에서의 예법, 법당 예절, 식사예절, 스님에 대한 예절 등 사찰

에서의 전반적인 예절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셋째는 ‘사찰의 조형물들’, 즉 깃발을 매는 당간지주,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 있는 탑, 진리의 빛을 의미하는 석등, 아난법석 때 불화를 거는 괘불대, 스님들의 사리를 모시는 부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넷째는 ‘사찰의 벽화’이다. 벽화는 대개 그림의 주제를 나타내는 제목이 화축에 적혀 있기에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팔상도, 십우도, 달마도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

다섯째는 ‘사찰의 도구’들, 즉 범종, 법고, 연판, 목어로 구성된 불전 사물과 염불이나 절을 할 때 사용하는 염주, 목어에서 유래한 목탁, 수행을 지도하는 도구인 죽비, 금강령(오령)과 금강저, 경쇠 등의 모양과 역할 등에 대해 얘기한다. 여섯째는 ‘불교의 상징물’에서는 만(卍)자 문양, 원이상절, 법륜, 불교기, 사자, 코끼리 등 동식물의 모양과 의미를 조망한다.

사찰에서의 예절 전반적 소개 조형물에 담긴 의미도 설명

일곱째와 여덟째는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식인 ‘저녁예불’과 ‘도량성 및 새벽예불’에 대해 소개하고 각 예불문 원문과 번역을 실었다. 아홉째 ‘사찰생활’에서는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일상생활과 수행생활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에는 울력(공동노동), 다도, 절(백발배), 사찰의 식생활, 안거, 탑돌이, 연등 만들기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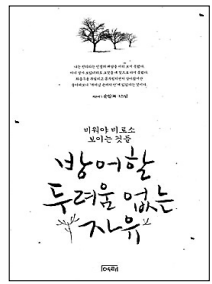
열번째는 불교에서 행해지는 각종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보살의 가피를 구하는 기도도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의 불교문화와 교리, 사찰의 생활 등을 재미있게 이해하는 안내 지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열한번째 ‘예불문과 경전 해설’에서는 사찰에서 아침저녁으로 독송하는 예불문과 반야심경, 천수경을 원문, 번역문과 함께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이들은 그 분량이 짧지만 우리나라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한국의 불교문화와 정신을 압축하여 담고 있다.

김주일 기자

삶에 지친 이들에게 내리는 인생처방전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순일 스님 지음 | 여러 펌 | 1만5천원



삶에 지친 이들에게 세상은 수많은 처방전을 제시한다. 배우자, 자녀, 친구나 직장내의 인간관계에 대한 것에서부터 인생과 더 깊게는 우리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인간의 삶을 포함한 모두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영적 스승들은 한결같이 ‘모든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라’ ‘너의 내면의 욕구를 뒤돌아보라’ ‘명상하라’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을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 되돌아가려는 가르침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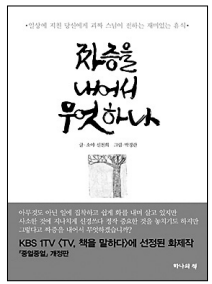
결국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관념이고, 예고이고, 의식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야말로 이 세상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리고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

될 것이다. 그 해법을 저자는 부처님에게서 찾는다. 저자는 이 책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뭔가 바라는게 있는 갈등하는 사람이 없애는 법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얽매고 사물에 얽매고 환경에 얽매이곤 한다. 그런데 자기고 자신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마당에, 타인이 자기보다 더 진실되게 자기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 서로 바라는 것이 없는 독립적인 관계일때, 그 사이는 가장 자유롭다. 내 자신이 주인인데 왜 구속하고 묶는 것일까”라고 스님은 설명한다.

또한 ‘타인을 바꾸려 하는 것’ 편에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확한 처방전을 제시해 준다. 저자는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의 생각을 자기식대로 바꾸려고 한다. 친구 사이에도 그러하고 부모자식간은 물론 연인관계에도 그러하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갈등의 시작이다. 상대가 예고 없는 깨달은 이라해도 누군가의 틀에 맞춰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서로 바꿀 수 없음을,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임을 말이다.” 김주일 기자

“시련이 닥쳐도 마음의 여유는 잃지 말자”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신현희 지음 | 하나의 책 펌 | 1만2천원



요즘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떠올려보자. 대학생은 취업문제, 직장인은 쌓여가는 업무에 치이며, 가정주부는 육아와 집안일에 몸과 마음이 지친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었는가? 어차피 살아야 할 삶이고 견어야 할 길이라면 짜증으로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행복을 선택해 즐거운 인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하다.

강아지와 새, 나무, 들꽃에 둘러싸여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소아 스님은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의 유쾌하면서도 맑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지친 마음을 감싸준다. ‘날씨가,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 입나, 술 사 먹지.’ 스스로 명추라는 저자

가 늘어놓는 술타령은 수많은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다. 술타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말자는 것이 저자의 메시지. 스님이라고 해서 저자가 따뜻한 위로만 건네는 것은 아니다. 삶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과 기발한 상상력이 더해진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에서 저자는 때로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부드럽게 설득을 하며 독자에게 지혜를 선물한다.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며 공연기획자이자 전복 김제 무주암에서 수행하는 스님인 저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만나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스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상은 함께 생활하는 강아지와 산사 주위의 새, 꽃, 나무 등 자연 속에 있다. 이 세상에 스승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저자는 말 못 하는 강아지지만, 쉽게 시들어 버리는 들꽃이지만 이들과 부대끼고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사에서 쌓인 삶의 무게를 잊어 던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김주일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 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목삼색, 코핀1개, 밴드1개, 이부사계
-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때는 염주 중 하나를 손으로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 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 4** 수직으로 나열된 염주와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묶습니다.
-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한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 통과시킵니다.
-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후 줄에 밴드트를 끼워줍니다. 다시 마감용 염주 통과시키면 됩니다.
- 8** 이때 밴드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게두고 모주의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게둡니다.
- 9** 두 줄로 2회 뒤로 가면서 매듭을 만듭니다.
- 10** 다시 매듭을 3번 한껏 조이면 됩니다.
- 11** 가위로 2mm정도 남게두고 자른 후 리미터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 12** 108염주 완성
신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66

다담 카페 |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